

강 의 계 획 서

강 의 계 획 서			
강 좌 명	유배, 절대 고독 속에 발견한 자기인문학	강 사 명	김종희
강의일정	2025년 9월 3일 ~ 10월 1일 수요일 10:00 ~ 12:00	강의장소	문화교실
대 상	성인		
강의목표	■ 유배지에서의 삶은 또 다른 세계로의 길을 열어가는 창이 되기도 했다. 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엄습하는 불안함 가운데 삶의 끈을 놓지 않았던 그들에 대해서 알아본다.		
강사소개	■ 現 문화 공간 빈빈 대표 ■ 現 계간 <사이편>편집위원 ■ 現 거창르네상스 자문위원		
준비물 (준비사항)	■ 열린마음, 환한 열정 :)		
강 의 내 용	차시 (월/일)	세부목표/ 관련활동	
	1	김려, 유배지에서 만난 사랑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은 사랑이다. 세계적인 예술가와 예술의 탄생 뒤에도 사랑이 있다.함경도 부령, 유배지에서 만난 김려의 연희와 <사유악부> 이 배된 진동만에서 발견한 바다 그리고 <우해이어보>를 세상에 보인다.	
	2	호남 사림의 열어간 도학자, 정암 조광조 기묘사화, 조광조가 죽자 그의 제자였던 양산보는 출사를 포기하고 낙향해 소쇄원을 짓는다. 양산보의 풍류의식이 낳은 소쇄원은 16세기 시가문학의 본산으로서 호남문화의 중요한 축을 이루었으며 소쇄원을 중심으로 호남의 사림문화가 무르익는다.	
	3	회재 이언적, 조선 성리학의 토대를 열다 소리와 시의 정원이 담양의 소쇄원이라면 독락당은 적극적 은둔을 했던 도학자의 절대고독이 학문으로 녹아든 별장 같은 곳이다. 드러나 보이는 형상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많은 회재 이언적은 독락당에서 성리학적 삶을 구현한다.	
	4	다음 시대를 기다린 사상가, 사암 정약용 다산의 학문은 강진 유배지에서 완성된다.신유박해 풍랑 속에 강진으로 유배를 온 그는 한동안 괴로움에 허송세월을 보내지만 제자들을 키우라는 노인의 충고에 자신을 추스르고 일어났다. 황상이라는 중인 신분의 학동을 시작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다산초당은 뜨거운 학문 토론의 장이되었다.	
	5	완당 김정희, 유배지에서 완성한 추사체 추사는 다른 사람을 과하게 깎아내리기는 했지만 그의 예술혼과 실험정신은 조선후기 진경시대를 완성시킨다. 척박하기 그지없는 제주에서의 유배생활. 홀로 지낸 8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추사는 필획의 굵기, 글씨의 크기, 글씨의 배치 등을 자유자재로 변형한 추사체는 열개의 벼루를 닳아 없애고 일천 자루의 붓을 몽당붓으로 만들며 글 쓰는 일에만 전념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기대효과	■ 유배지의 삶에서 엿보는 또다른 세계로의 만남 ■ 역경속에서 피어나가는 삶의 인문학		